장성고 반옥진 교장(둘째줄 가운데)과 예비 고3학생들이 10일 2011학년도 '수능대박'을 다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성고 성공 배우자"

수능 1~4등급 비율 전국 1위·4년제 대학 전원 합격

80개 교육기관 1천여명 방문…공교육 '롤모델' 부상

장성고등학교가 전국 고교의 '롤모델(role model)'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국 80개 교육기관에서 1천여명이 장성고를 방문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세미나에서도 장성고의 성공사례가 등장할 정도다.

장성지역 유일한 일반계고인 장성고는 지난해 초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 발표한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 1~4등급 비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올해까지 13년 연속 '4년제 대학 전원 합격'으로도 유명한 장성고는 이번 대입에서도 서울대 5명, 연·고대 20명, 의·치·한의대 13명, 사관학교 13명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 3학년 276명 중 절반이 넘는 140명을 합격시켰다.

인구가 5만명도 안 되는 농촌마을 학교의 공교육 성공과정을 들여다 봤다.

◇학생의 '공부높이' 맞춤교육='사교육이 없는 학교'인 장성고는 공교육 성공 모델로 꼽힌다. 매년 250명 안팎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장성고는 정원의 절반을 장성지역 중학교 졸업생으로 채운다. '잘 가르친다'는 명성 때문에 전국에서 우수학생이 몰려들고 있지만, 건학이념인 지역인재 양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신입생의 학업능력은 여느 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장성고에 입학하는 순간, 학생들의 수준은 달라진다. 신입생은 철저한 성적 테스트를 통해 능력별로 각기 다른 교육 시스템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수열극한반 등 17개 개별 분야로 진행되는 '수리따라잡기'반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질색하는 수학 성적을 끌어올리는 비밀병기다.

◇제자 대신해 사교육 받는 스승들=교사들은 방학이면 유명 사설학원에서 연수를 받고, 수업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연구한다. 이는 사설학원만의 수업비법을 공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 논술지도,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연수까지 다녀왔다.

장성고 교사들은 이렇게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방학동안 자신의 이름을 건 실명제 특별 수업을 개설, 학생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입학사정관제=지난 10년간 대입정보실에서 운영해온 학생 관리 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제와 일맥상통한다. 대입정보실은 학생 개개인의 신상에서부터 고교 3년간의 활동 내용, 진학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종 경시대회와 자격증반을 구성하고, 봉사동아리 등을 결성해 학생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내용은 학교의 인증서 첨부와 함께 개인별로 꼼꼼히 기록된다. 입학사정관제로 대학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에겐 무엇보다 값진 자료다.

반옥진 교장은 "장성고의 교육 철학은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마다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실천했을 때 공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 등록률 상승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등록금이 대학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이 지난 9일 2010학년도 신입생 등록(1차)을 마감한 결과, 대다수 대학의 등록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일부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이나 학부모들이 수도권지역 대학보다 등록금이 1년에 200~300만원 가량 적은 지역대학을 선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외에 주거비와 생활비 등이 훨씬 많이 들어 지방대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성적 우수학생들의 지방대 선택이 늘어 전남대와 조선대의 경우, 인문계는 수능 2등급 이상 신입생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동신대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신입생 등록을 실시한 결과, 입학정원 1천756명 모집에 1천702명이 등록해 96.9%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초 등록률 90.1%와 비교하면 6.8%p 상승한 것이다.

호남대도 같은 기간 신입생 등록을 받은 결과, 입학정원 1천888명 모집에 1천765명이 등록해 93.5%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초 등록률 83%보다 무려 10.5%p나 뛰어오른 수치다.

조선대 등록률도 84.40%로 지난해 82.22%보다 2.18%p 올랐다.

전남대는 등록률이 지난해와 같은 83%를 기록했다. 또 광주대와 광주여대도 각각 90.6%, 92.6%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오른 등록률을 보였다. 각 대학들은 오는 18~24일까지 결원 숫자만큼 서너 차례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형 간염 조심하세요"

지난해 급증…4월 대유행

지난해 A형 간염 발생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오는 4월부터 A형 간염이 본격 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은 통상 4월부터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된다며 만성 간질환자나 해외 장기 체류자 등 고위험군은 30일간의 잠복기를 감안, 2월말~3월초에 A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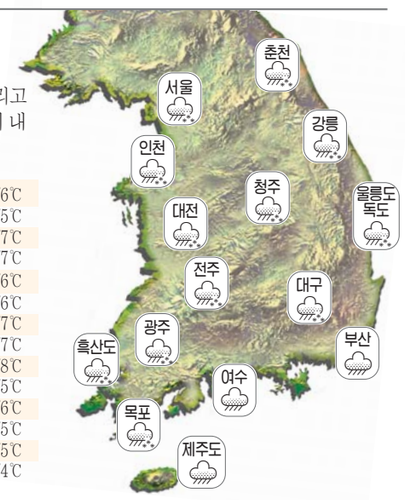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3분 해짐 18시 10분 / 달뜸 05시 31분 달짐 15시 36분

빗방울이 눈발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눈이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비/눈	5/6℃
목 포	흐리고 비/눈	3/5℃
여 수	흐리고 비	6/7℃
완 도	흐리고 비	6/7℃
구 례	흐리고 비/눈	4/6℃
해 남	흐리고 비	5/6℃
장 흥	흐리고 비	6/7℃
고 흥	흐리고 비	6/7℃
순 천	흐리고 비	5/8℃
영 광	흐리고 비/눈	3/5℃
진 도	흐리고 비	4/6℃
전 주	흐리고 비/눈	4/5℃
남 원	흐리고 비/눈	3/5℃
흑산도	흐리고 비/눈	3/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먼바다	북동~동	2.0~4.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먼바다	북동~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00:14 13:09	05:46 18:36
여수	08:15 20:02	01:32 14:1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날 씨						
최저/최고	1/4	-1/8	-1/7	0/8	-1/7	0/7

5·18 30주년 슬로건 공모

최고상 50만원 상금

'5·18 민중항쟁 제30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5·18 정신을 계승하고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슬로건을 공모한다.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공동 출품도 가능하다.

오는 18일까지 접수하며 준비위원회 홈페이지(http : //518gj.org)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은 뒤 e-메일(518gj@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최고상 작품 출품자에게 50만원의 상금을 주며 심사결과는 오는 25일 발표한다. 자세한 문의는 (062)352-051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에 고교 대안교육 '위스쿨' 개교

부적응 학생 상담·선도

광주에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맡게 될 '위(Wee) 스쿨'이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10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상담, 선도하고 교육을 책임질 위스쿨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이사장 남상헌 신부)를 선정, 최근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살레시오회 창립자 이름을 따 '돈보스코' 학교로 명명된 위스쿨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중·장기 교육을 맡게 된다.

폐교된 옛 하남초교에 터를 마련했으며 30억원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 기숙사와 교사 신·증축 등을 거쳐 3월 개교할 계획이다. 대상은 고교 1, 2학년으로 90명이 정원이다.

한편 위스쿨은 정부의 위기학생 구제를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에 따라 24시간 상담을 위한 위-센터,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위-클래스를 거친 마지막 단계로, 중·장기위탁 대안교육시설이다. /박진표기자 lucky@